특 집 | 사서들이 꿈꾸는 도서관

생활의 중심, 도·서·관

이 학 건*

정 수 현**

요즈음 TV에서는 '현대생활백서' 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의 다양한 쓸모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엮은 연속광고물이 방영되고 있다. 생활의 중심, 머시기 텔레콤이라나…? 글쎄…, 괜스레 씁쓸한 기분이 되어 개운치 않은 맛이 난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 생활의 중심에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지나친 욕심이란 말인가?

해체된 공동체, 정에 목마른 사람들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일러 '정이 많은 사람, 정에 약한 사람' 이라고들 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합리와 이성보다는 직관과 감성에 의존했던 동양적 전통에서 유래한 것일 게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으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공동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네 삶의 모습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계, 두레, 품앗이 등과 같은 생활공동체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개개인의 삶이 끈끈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꾸려져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듯 공동체 생활에 익숙한 우리네 삶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고 있는 까닭인 듯 싶다. 근래에 온라인 상의

*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건립요원, lismania@hanmail.net
**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사서교사, may1004@dreamwiz.com

각종 카페 및 동호회 사이트, 동창모임 사이트, 미니 홈피 등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해체된 공동체를 인터넷을 통해 새롭게 구축하려는 시도인 듯 싶고, 공동체에 대한 갈증해소욕구의 해갈을 위해 찾아낸 또 다른 분출구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찌 보면, 우리들은 '정에 약한 사람' 들이 아니라 '정에 목마른 사람' 들일지도 모를 일이다.

도서관,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다

우리는 감히, 공동체를 갈구하는 우리들에게 도서관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도서관이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생활의 중심공간이 될 때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아래에 그 가능성의 단초들이 될 만한 몇 가지 이야기를 적어본다.

한인사회의 중심, 교회도서관 ; 해외에 나가있는 교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빠지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교회에 관한 내용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활동을 넘어 한인사회 그 자체인 까닭이다. 특히, 교회도서관은 그 중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곳에서 책을 빌려야 한글로 된 활자들을 볼 수 있고, 그곳에서 인터넷에 접속해야만 고국의 소식을 접할 수 있으며, 사랑방과도 같은 그곳이라야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 하릴없이 한인사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학의 심장, 대학도서관 ; 흔히 '도서관은 대학의 심장' 이라고 말한다. 가끔은 출처를 알 수 없는 – 미국의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 도서관의 머릿돌[礎石]에서 유래했다고도 하고, 도서관학의 거두인 다운스(Robert Bingham Downs)가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은 말이라고도 한다 – 이 말의 진의가 궁금해진다. 아마도 연구와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는 자료와 정보가 유통되는 도서관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는 것일 테지만… 대학생활의 중심, 대학공동체의 중심이 – 즉, 단순히 자료와 정보가 유통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사람"이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이 – 도서관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

마을의 중심, 지혜의 등대 ; 브라질의 꾸리찌바(Curitiba)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도서관은 – 그 이름이 '지혜의 등대' 라고 한다 – 단순히 지역의 작은 도서관이라

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도서관이자 독서센터, 공공학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동네 사랑방이 되기도 하며, 밤이 되면 불을 밝혀 아름다운 야경을 제공하는가 하면, 마을을 지켜주기까지 한다. 그곳에서 도서관은 이미 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는 듯 하다.

감성 코드의 생활공동체, 도서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도서관이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가끔씩 지인들에게 '애 봐주는 도서관' 이나 '김장독 묻는 도서관' 을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농담을 던지기도 하는데,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생활의 중심에 두기 위한 구상과 몸부림이니 그저 우스개라고만 볼 수는 없다.

우리가 꿈꾸는 도서관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서관, 움베르토 에코의 말처럼 "즐거운 우주"가 되는 도서관이다. 그럴듯한 건물로서의 도서관도, 자료가 쌓여있는 책 창고로서의 도서관도 우리가 원하는 도서관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정보유통의 중심이 되는 정보센터로서의 도서관 역시 우리가 바라는 도서관은 아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 숨쉬는 도서관, 그리하여 결국에는 공동체의 중심, 생활의 중심공간이 되는 도서관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으로 원하는 것이다. 요컨대, 기술과 정보를 강조하는 이성적 코드의 도서관이 아닌 정감 어린 감성적 코드의 생활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네 삶을 지배하는 감정을 두 글자로 요약하자면, 정(情)과 한(恨)이 될 것이다. 정이 넘치는 도서관을 원하는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한 서린 도서관만이 있는 듯 하다. 때로는 세상의 온갖 불평불만분자들이 도서관에만 모여 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의 도서관에는 무수히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평과 불만들이 점철되어 있다. 정에 약한 사람들, 아니 정에 목마른 사람들에게 도서관은 한이 서리게 만 만든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덧 글. 생활의 중심으로 도서관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는 이미 시작된 일인 듯 보인다. 얼마 전,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도서반 '오아시스' 친구들이 만든 동영상 자료인 〈도서관 생활백서(http://www.hakdo.net/bbs/data/2006032318201761.wmv)〉를 참고해볼 만 하다.